

'8전 전승' 임채빈, 특선급으로 특별승급

인천AG 김·홍콩 월드컵銅 실력자
프로서도 톱 스프린터 존재감 뽐내
최강자 정종진과의 맞대결 기대감



임채빈(5번)이 8일 열린 광명 6회 2일차 경주에서 전매특허인 선행 승부로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임채빈은 데뷔 후 8전 전승을 올리며 특선급으로 특별승급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벨로드롬의 '역대급 괴물 신인' 임채빈(25기, 29세, 수성, A1)이 특별승급으로 특선급에 진입했다. 임채빈은 9일 광명 11경주 우수급 결승에서 우승하며 공식 데뷔 후 8전 전승을 질주하고 있다.

임채빈은 데뷔전에서 전매특허인 선행승부로 1위를 차지했다. 기운이 낮은 겨울에는 기록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의 마지막 200m 랩타임은 무려 10초97이었고 벨로드롬 한 바퀴(333m)는 18초02를 기록했다. 경륜 신인 최고 기록이며, 이날 특선급에서도 볼 수 없던 엄청난 스피드였다. 2위와 무려 9대차신을 벌리며 경륜 팬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후 7경기에서 꾸준히 200m와 333m에서 각각 10초, 18초 초반대를 기록하며 신인들의 통과례와 같은 호된 신고식 없이 연승행진을 이어갔다.

임채빈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단체추발 금메달, 2016년 홍콩 트랙 월드컵 경륜 경기 동메달을 획득했다. 성인 남자 단거리 선수가 월드컵 같은 세계무대에서 입성한 경우는 국내 사이클 역사상 지금도 그가 유일하다. 국내 사이클 단거리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임채빈은

주무대가 프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톱 스프린터의 위용을 뽐내고 있다.

최대 장점은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 능력과 함께 선행승부 때 종속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전거 피팅이나 주법에도 크게 민감하지 않아 슬럼프나 기복도 덜하다. 체력도 받쳐주고 시야도 넓고 풍부한 국제경기 경험으로 멘탈 역시 남다르다. 비교적 늦게 데뷔했지만 2018

년 7월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린 스프린터 경기에서 200m 9초82의 한국 신기록을 기록할 만큼 아직 전성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은 현 '경륜 챔피언'인 정종진과의 맞대결이다. 정종진은 '경륜 레전드'로 통하는 조호성의 최다 연승과 그랑프리 3연패 기록까지 경신한 자타 공인 경륜의 일인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각력(다리의 힘)만 비교하면 임채빈이 뒤질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초반 몇몇 경주는 정면승부 또는 연대의 열세로 고전할 수도 있으나, 경험이 축적되고 인지도가 올라가면 여측불허의 빅매치가 될 수 있다. 임채빈이 만약 정종진을 초반에 멀리 두고 한 바퀴 선행을 나서거나, 반 바퀴 또는 추입 같은 동일한 거리에서 맞대결을 펼치면 현재 기록상으로는 뒤질 것이 없다는 것이 경륜전문가들의 평가다.

예상지 '최강경륜'의 박창현 발행인은 "임채빈이 1차 목표인 특선급 진입에 무난히 성공했고 특선급에서도 맹활약이 기대된다"며 "그의 역대 신인 최다 연승 행진 기록 역시 또 다른 불거리"라고 전했다. 또한 "정종진과 임채빈의 맞대결은 축구의 메시와 호날두에 비교될만큼 벨로드롬 사상 최고의 흥행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하남도시공사와 상생발전 업무협약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6일 하남도시공사와 '지역 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지역상생 및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 내 스포츠·레저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 공동 수행 및 전문지식 교류 등을 협력한다.

상반기 경륜선수·직원 인권 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6일 스포츠클럽 광명홀에서 경륜선수 및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2020년 상반기 경륜 선수 및 직원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조남용 강사를 초빙해 인권의 개념과 역사·역할·과제 등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스포츠계의 인권 침해 사례와 유형을 들려주고 인권 침해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선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6회(상·하반기 각 3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시즌 첫 승' 경정 9기 삼총사의 힘찬 물보라

통산 80승 김지훈 9기 대표 스타
신현경·흥기철도 기분좋은 출발

경정이 4주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26일 5회차 경주로 재개한다. 각 기수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활약과 16기 신인들의 도전이 올 시즌 재미를 배가시킬 예정이다. 전체기수 중 가장 적은 인원(3명)인 9기들의 약진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먼저 김지훈(9기, 34세, B1)의 최근 활약이 인상적이다. 2010년 데뷔 첫 시즌에서

단 1승도 없지만, 2015년 12승을 시작으로 매년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 스타트 0.24초와 더불어 1턴 전까지만 안정적인 모습이다. 1코스 확실한 승부로 2회 2일차 15경주(1월 9일)에서 시즌 첫 승을 거뒀다. 현재 통산 80승으로 9기의 대표 스타다.

신현경(9기, 40세, B1)은 부상으로 인하여 한해 늦게 데뷔해 2011년 프로 입문 첫 승을 기록했지만 저조한 스타트로 이후 단 1승도 추가하지 못하고 시즌을 마감했다. 개인 최고 시즌은 2016년 평균 스타트 0.26초를



김지훈 신현경 흥기철

기록하며 거둔 7승. 전계 유리한 코스(1.3코스)에서의 입상으로 아웃코스에서는 1승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2회 1일차 15경주(1월 8일)에서 4코스 0.14초 스타트에 휘감아찌르기 전개로 첫 승을 신고했다. 개인 통산 28승이다.

흥기철(9기, 41세, B1)은 신인왕 출신이지만 2010시즌 평균 스타트 0.33초에 2승

에 불과해 데뷔 성적표는 초라했다. 기록 있는 스타트와 다른 선수보다 무거운 체중(64kg)으로 좋은 모터를 배정받아도 순위경합에서 후순위로 자주 밀렸다. 2015시즌 개인 최다승인 17승으로 올렸지만, 2016년 F(사전 출발위반)에 발목을 잡으며 6승에 그쳤다. 올해 4회 2일차 10경주(1월 23일)에서 시즌 첫 승을 기록하며 통산 63승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경정고수' 분석 전문위원은 "생존게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경쟁에서 스타트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 언제든 반등의 기회는 찾아온다.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정용운 기자



"1위 우리카드, 꼴찌 한국전력 1~3세트 싸늘이" 불법스포츠도박 참여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배구토토 매치 21회차 중간집계
1~3세트 2점차 승리 투표가 최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도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오는 12일 오후 7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2020시즌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우리카드전을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매치 21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결과, 참가자들은 원정팀 우리카드의 우세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트 승리팀과 점수차를 맞히는 배구토토 매치 21회차 게임에서 1~3세트별 예상 승리팀은 모두 원정팀인 우리카드의 차지로 돌아갔다.

1세트에서 우리카드는 74.85%를 획득해, 25.15%를 기록한 한국전력에 비해 큰 우위를 보였다. 이어 우리카드는 2, 3세트에서도 65.28%와 77.86%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홈팀 한국전력의 투표율은 각각 34.72%와 22.14%로 나타났다.

더불어 1~3세트까지의 각 세트 별 예상 점수 차이에서는 1세트(27.90%)와 3세트

(30.74%)의 경우 2점차가 1순위를 기록했고, 2세트에서는 3~4점차(37.65%)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리그 선두와 최하위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현재 우리카드는 승점 56점(20승7패)로 리그 1위에 올라있는 반면, 한국전력은 승점 21점(6승20패)로 7위에 머물고 있다.

리그 순위의 격차만큼, 양팀의 상대전적 역시 희비가 엇갈린다. 우리카드는 이번 시즌 상대전적에서 4전승으로 우위를 보였다. 그 중 두 경기는 세트스코어 3-0의 완승을 거뒀고, 나머지 두 경기에서도 세트스코어 3-1의 승리를 거두는 등 한국전력전을 상대로 매 경기 압도적인 면모를 보였다.

지난 9일 대한항공에게 패해 연승행진이 중단됐지만, 현재 한국전력이 5연패의 부진에 빠져있는 데다 양팀의 상대전적에서 우리카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토트팬들의 기대와 같이 우리카드가 손쉬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한편 이번 배구토토 매치 21회차 게임은 12일 오후 6시 50분에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 결과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최근 기세를 부리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센터'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센터에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및 이용자와 관련한 부정행위는 물론 승부조작까지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고 (주)케이토토에서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도박)만이 유일한 합법이다. 또 온라인에서는 공식발매 사이트인 '베타맨'을 제외한 모든 사이트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인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손쉬운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불법스포츠도박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현재 불법스포츠도박 신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센터(1899-1119) 혹은 온라인 신고센터(www.cleansports.kspo.or.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센터에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은 물론 불법스포츠도박 참여자, 승부조작,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받고 있다. 신고할 경우 신고 접수 후 약 15일 이내에 심의결과가 공지되며,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13일 KGC-KCC 경기 대상 농구토토 매치 12회차 발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도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는 13일 오후 7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안양 KGC-전주 KCC전을 대상으로 농구토토 매치 12회차를 발매한다.

남자프로농구 1경기의 전반(1+2쿼터)득점대와 최종(연장전 포함)득점대를 모두 맞혀야 하는 농구토토 매치에서 이번 회차의 판권은 KGC의 연패 탈출 여부다.

현재 리그 3위를 달리고 KGC는 최근 3연패를 기록하며 4위 KCC의 추격을 허용했다. 기분 좋은 3연승 이후에 당한 연패라 팀의 사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정팀인 KCC 역시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파죽의 4연승을 노렸지만, 지난 LG전에서 믿을 수 없는 대역전극을 당하며 분위기가 침체됐다.

연패 탈출이 시급한 KGC와 대역전전의 아픔을 씻으려는 KCC의 이번 시즌 상대전적은 나란히 2승2패다.

한편 이번 농구토토 매치 12회차는 경기 시작 10분 전인 13일 오후 6시 50분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 결과 모두 종료된 뒤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